

무주군 특교세 확보 인간힘

윤여일 부군수, 행안부 방문 사업 4건 국비 지원 요청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이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찾은 윤여일 부군수는 △무주 향로산 안전한 임도 만들기 사업과 △용추마을 진입교 재가설 공사, △구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60억 원을 요청했다.

“무주 향로산 안전한 임도 만들기 사업(사업비 20억 원)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방문이 잦은 향로산 자연휴양림 임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17.6km 규모에 낙석방지책과 사방벽,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

다. 무주군은 낙석피해 우려를 씻을 수 있어 임도를 관광 자원화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천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사업비 70억 원)은 36년이 경과된 구천동정수장 시설을 개선해 구천동 일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안성면 통안천을 횡단하는 용추마을 진입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는 총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교량 전체를 다시 봐 콘크리트 균열과 부분 파손, 침식 등에 의한 위험요소를 없애고 호안 및 접속도로, 난간 등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이와 관련해 1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건은 무주 향로산 자연 휴양림에 산림교육과 문화 기능을 추가한 복합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총 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되며 목재체험장과 전시장, 다목적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산지촌의 특성을 살린 시설로서 목재의 대중화와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지점이 되는 동시에 세계적인 으뜸관광을 실현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여일 부군수는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군민생활, 그리고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로 염성을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고원의 고품질 고추를 농민들에게 직접 살 수 있는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이 오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린다

마이산 고추시장 14일 오픈

진안을 흥삼한방센터 주차장 알뜰한 가격·최고품질 판매

진안고원의 고품질 고추를 농민들에게 직접 살 수 있는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이 오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안을 흥삼한방센터 주차장에서 '마이산 고추시장'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마이산 고추시장은 매 4일과 9일(4·9·14·19·24·29일) 진안장날 오전 7시부터 열린다.

군은 지난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직거래장터인 고추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진안 고추 시장은 해마다 관내 2,000여 농가가 생산하는 고추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진안 고추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마이산 고추포장재에는 생산농민의 이름, 생산년도 등 생산자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다”며 “매년 진안고원의 명품고추를 거품없고 알뜰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진안 고추시장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폭염·가뭄피해 예방 최선

장수군은 최근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용저수지 점검과 가로수 관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업용 저수지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6개소가 준공 50년이 경과한 노후 저수지로 분기별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지 담수관정을 개발해 저수율을 높여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방누수, 북·사동 노후상태에 따른 보수사업을 편성해 영농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폭염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도로변 약 114km와 공원 등에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및 자체인력을 투입해 물주기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2018년까지 식재한 수목 및 수세가 약하거나 가뭄피해가 있는 수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폭염특보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수목관리 및 저수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결핵 인식 개선 예방 교육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관장 경규봉)은 9일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결핵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노인복지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진행한 이날 교육에는 복지관 회원,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집단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알아보고 결핵예방 방법 및 결핵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결핵 감염률이 매우 높지만 결핵을 잊혀진 질병, 후진국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염 시에도 잘못된 상식으로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날 교육의 초점은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면서 위험성을 알려 질환이 초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는데 맞춰졌다.

경규봉 관장은 “건강 관련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소년 문화체험 '문화 톡톡 꿈이 쑥쑥'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1명 대상 프로그램 진행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는 지난 9일, 무주군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및 청소년 171명을 대상으로 천안에 위치한 오션파크에서 2018 청소년문화체험활동 '문화톡톡 꿈이쑥쑥'을 진행했다.

청소년문화체험활동 '문화톡톡 꿈이쑥쑥'은 무주군의 환경 등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자원과 부족한 경험으로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을 키우고, 단체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관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키우고, 세상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문화체험활동의 재원은 전라북도의 보조금,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의 사업지원사업 문화진흥사업분야의 공모 선정과 무주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는 2008년을 시작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함께 청소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지역문화 형성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정분 소장은 “정서적 민감 시기라 탈선 우려가 있는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사진 재능 나눔 활동에 귀농귀촌인협의회와 손을 맞잡은 농부들 봉사단이 참여하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수군자봉센터, 어르신 장수사진 재능나눔 귀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고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주관하는 장수(영정)사진 재능 나눔 활동에 귀농귀촌인협의회와 손을 맞잡은 농부들 봉사단이 참여하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8일은 장계면 더사모복지센터를 방문해 9일은 천천면 백세동안요양원, 10일은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활동을 펼치며 3일간 9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메이

크업도 헤드리고 장수사진을 찍는다.

7월 계면면을 시작으로 8월 10일 봉사 활동이 마무리가 되며 160명의 어르신들의 사진을 담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화장도 헤드리고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는 간단한 다과도 제공하는 등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성심을 다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진안군은 9일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2018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에 필요한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진안군에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진안군 11개 읍·면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약 900여명의 표본을 뽑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254개 지역에서 동시에 매년 실시되는 건강통계 조사이다.

지역별 주민의 건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 대상 가구 선정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진안군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 6명의 조사원이 조사기구를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한 1:1 면접 조사 및 계속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포함해 총 21개, 영역 201개 조사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및 의료이용 등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정확한 건강 통계를 얻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